

공민.

여학운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내고 전여대협 강화하자!!!

89년 건준위 1기부터 95년 출범후 3기까지 전여대협의 역사를 짚어 보자..

87년	서울 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발족 이후 각 지역 여대협 발족
88년	매춘 율령의 반대 투쟁, 주한 미군 철수를 중심으로 AIDS주방 운동
89년	평양 축전 제7센터 참여 및 민족 통일 여학생단 조직, 활동 ?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건설 준비 위원회 결성
90.91년	전여대협 간부 수련회, 취업 차별 철폐 투쟁, 지속적 지역 교류 사업
92년	김보은, 김진관 석방 투쟁, 성폭력 특별법 제정 투쟁. 전여대협 세기 통일 선봉대 활동 ?
93년	윤금어씨 살해 미군 처벌 투쟁, > 주한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 본부 공동 발족
94년	양에리 학우 구명 운동, 전여대협 제2기 통일 선봉대 활동. 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에 가입
95년	제1기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건설 제3기 전여대협 통선대 활동 장산대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전여대협 일본 대사관 향의 방문 성폭력상담요원학교로 학내 성폭력 근절 운동 전개
96년	장산대 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국회청원 서명운동, 5.29 수요 집회 전국 집중 투쟁, 4기 전여대협 통선대 활동

1. 전여대협의 역사

◆건준위 이전의 상황

70년 후반부터 선도적 투쟁이라는 학생운동 전반에 걸친 흐름과 함께 진보적 여학생들이 비합법적 연구 씨름을 운영하면서 여성 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이해하려는 사상적인 모색과 반학 운동에 복무하는 여학생 운동을 끌어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84년 이후 학원 자율화 조치로 총여학생회를 건설하면서 여성 문제에 대한 선전과 각종 가두 투쟁을 전개하고 여성 노동자들과의 연대 투쟁(특히 여성 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을 대표로)을 통해 여성해방의 주역이고자 투쟁하였다.

비합법씨름노선의 편향을 극복하고 좀더 여학우들과 함께 하는 여학생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당시 파쇼 헌법 철폐, 군부 독재 타도 등의 투쟁과 함께 여학생회에서는 모성 보호,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가족법 개정 투쟁 등 민주 헌법에서 담겨져야 할 여성들의 자주적 삶을 위해 투쟁을 전개하였고 군부 독재 타도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86년 여름 권인숙양 성고문 사건이 발생하자 많은 여학생회 간부들이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를 결성하여 연대투쟁을 전개하였고 그결과 연대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87년 서울지역 여대생대표자 협의회를 건설하게 되었다. 서여대협 발족이후 각지역 여대협의 발족이 속속 뒤따랐으며 명실공히 여학생운동의 발전을 총체적으로 지도, 집행해갈 조직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끊이지 않았다.

88년도 하반기에는 율령의 반대 투쟁에 결함하여 매춘 율령의 반대투쟁을 여성단체들과 공동투쟁으로 벌여내었고, 주한미군부대를 중심으로 AIDS주방운동도 함께 벌였다.

이후 각 지역 여대협은 여학생 운동을 조직적으로 연대할 것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이러한 필요성을 느껴면서 89년 평양축전에 제7센터 참여 및 150여명이 민족통일여학생단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면서 많은 지역 총여학

생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를 건설할 것을 결의하고 전여대협 건준위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

◆건준위 결성 이후

89년은 여학생 운동에 있어 질적 전환의 시기였다. 축전 투쟁을 계기로 여학운은 청년 학생운동에 자기 내용을 가지고 복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전여대협 건준위를 발족했다는 것은 그 속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제 여학운은 전국적 조직을 내어 올 준비를 하고 변혁 운동의 사상에 근거한 여학생 대중운동, 대중 투쟁을 벌일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그것을 총화시켜 여성운동, 여학생운동을 정치세력화할 그릇을 만들어낸 것이다.

90,91년 전여대협 간부 수련회를 거쳐면서 연대의식이 고양되고 그로 인해 지역단위 결속력이 높아지는 성과를 안아왔다. 92년 김보은, 김전관 식방투쟁을 대대적으로 일궈내면서 사회단체들과 공동투쟁을 전개하여 성폭력의 심각성을 전국적으로 여론화하면서 제도적으로 성폭력을 추방시키려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투쟁 끝에 결국 성폭력 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성과를 내오게 되었다. 그리고 총선과 대선에 결합하면서 여학우들의 생활지 요구로부터 정치의식을 높여내는 것을 중심으로 넓게는 민주정부의 상 속에서 성폭력의 제도적 제재, 모성보호의 제도적 보장 등 여성부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총선, 대선 투쟁을 전개하였다.

93년에는 삼균이씨 살해 미군 케네스마클 치벌투쟁을 벌여내면서 주한미군 문제를 폭넓게 여론화시키고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운동본부를 발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94년 양애리 학우 식방투쟁을 벌여내면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지는 가정폭력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환기시켜내었다. 95년을 맞으면서 성, 계급, 민족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결집되어진 문제인 정선대문제 해결투쟁을 전국적으로 벌여내면서 역사를 주동적으로 개척하고자 하였다. 95년은 또한 6년의 건준위를 해소하고 제1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를 건설해내면서 여학생운동의 통일이 사상으로 투쟁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2기를 맞은 전여대협은 정선대 문제 완전 해결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정선대 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국회청원 서명운동, 상경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 내는 등 여대협 자체적인 대중투쟁의 기반을 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또 전여대협의 기층을 강화하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인식 속에서 지역여대협 강화, 파여부 강화를 위한 실사작업, 지도사임을 벌여가고자 노력하였다.

97년, 그리고 이후 여학생운동의 혁신, 강화를 위한 제언

위에 적은 전여대협 건준위 이전부터의 역사는 선배들이 정리해 놓았던 문건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정말 우리 선배들의 피어린 투쟁 속에서 건설된 조직이 바로 전여대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의 기록 속에서 알 수 있다. 더 이상 말로서 전여대협 강화를 외치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도 선배들과 같은 피어린 투쟁을 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여기서 이남 사회 여학생운동의 정리를 하든지.. 결단을 내릴 시기가 온 것이다.

여학생운동의 조직이 건설되고 여학생 운동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바로 학생운동의 조직이 건설되고 학생운동의 전망을 고민하게 된 시기와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위니 문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의 고민은 출발해야 한다. 왜 학생운동과 거의 같은 시기에 여학운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운은 학운과 같은 비약적인 변화 발전을 일구어 오지 못하였는가.. 3기를 맞이한 전여대협, 이제 더 이상 정체된 여학생운동의 현실을 관망하는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정말 작은 성과에만 만족하고 '이정도면 잘했네'하며 근거없는 낙관주의에 빠져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여학생운동이 이대로만 나간다면 잘하면 3년은 울귀먹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이상을 버려 나갈 수는 없다.

혁신! 그것은 바로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고민과 실천이 있을 때만 혁신은 실현되는 것이다. 과연 여학생 운동을 혁신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은 무엇인가~~. 여학생운동이 경제의 나라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배후조종하는 것은 무엇인가!!!!

9 전여대협의 8년의 역사



각지역에서 여학생운동을 전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여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속에 답답함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한계를 느끼기도 하였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지역의 한계를 넘고 서로의 고민을 모대기는 속에서 보다 큰 힘, 성과를 만들기 위하여, 집단적이고 통일된 결집을 위하여 전여대협 건설과 강화가 요구되어지고 있다고 본다. 87년 6월 대 국민 항쟁을 거치면서 우리 운동은 각계급, 계층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자기조직, 자기 운동의 전망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속에서 부문 계열운동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게 되었다. 전여대협 또한 이 속에서 기간의 성과점을 총화하며 전국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여대협 건설의 의지를 모아 나갔다.

전여대협이라는 전국적 연대 조직을 건설하고자 89년 처음 건설준비위하는 모임을 결성하기 전까지 우리 여학생운동의 맥을 간략하게 짚어보고 전여대협 건설을 준비한 6기까지의 평가를 하면서 전여대협 2기의 이야기를 들어갔으면 한다.

전여대협 건준위 이전의 상황

70년 후반부터 '선도적 투쟁'이라는 학생운동전반에 걸친 흐름과 함께 진보적 여학생들이 비합법적 연구 씨클을 운영하면서 여성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이해하려는 사상적인 모색과 변혁운동에서 여학생운동을 풀어가려는 노력을 해 나갔다.

84년 이후 학원 자율화 조치로 대중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많은 학교들이 제 1대 총여학생회를 건설하면서 여성문제에 대한 선전과 각종 가두투쟁을 여회단위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TOMBOY) 등을 통하여 사회적인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비합씨클노선의 편향을 극복하고 좀더 여학우들과 함께하는 여학생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당시 파쇼헌법철폐, 군부독재타도등의 투쟁과 함께 여학단위에서는 모성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족법 개정 투쟁등 민주 헌법에서 담겨져야 할 여성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투쟁하였다.

군부독재타도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86년 여름 권인숙양 성고문사건이 발생하였다. 많은 여회간부들이 구속되는 등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남아있는 간부들이 결의를 하고 투쟁주체를 세웠으며 서울대, 고대, 성대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를 결성하여 학내시위, 가두시위를 주도하였다. 이 투쟁을 통해서 연대운동속에서 더욱 조직적으로 운동을 풀어나갈 수 있고 그랬을 대만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고, 그 속에서 87년 서울지역 여학생 대표자 협의회를 건설하기에 이른다.

서여대협 발족이후 각 지역 여대협의 발족이 속속이 뒤따랐으며 명실공히 여학생운동의

발전을 총체적으로 지도, 진행해 갈 조직을 건설해 왔다. 이미 서여대협을 중심으로 88년도 하반기에는 올림픽 반대투쟁에 결합하여 배춘올림픽 반대 투쟁을 여성단체들과 공동투쟁으로 벌여내었고, 주한미군부대를 중심으로 AIDS추방운동도 함께 벌였다.

이후 서여대협을 중심으로 잇따른 여러지역 여대협은 여학생운동을 조직적으로 연대할 것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면서 전국적인 여학생운동의 성장으로 자기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시키려는 기운이 높아지게 된다. 그리하여 89년 평양축전에 제7센터 참여 및 150여명의 민족통일여학생단을 조직하여 활동하면서 많은 지역 총여학생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를 건설할 것을 결의하고 전여대협 건준위모임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전여대협 건준위 결성 이후

88년은 여학생운동에 있어 질적 전환의 시기였다. 축전 투쟁을 계기로 여학운은 청년학생운동에의 자기내용으로서의 복무를 경험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전여대협 건설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는 것은 그 속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제 여학운은 전국적 조직을 내어올 준비를 하고 이념에 따른 여학생대중운동, 대중투쟁을 벌일 구체적 방법을 고민하고 그것을 총화시켜 여성운동, 여학생운동을 정치세력화할 그릇을 만들어 낸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89년 평축참가 투쟁을 벌이면서 여학운은 청년학생운동에의 자기내용으로서의 복무를 경험하게 되면서 부문운동으로서 여학운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호라발하게 이루어지고 여학생운동에 있어서 정치투쟁을 개척, 고민하게 되었으면 여학생운동의 투쟁성이 고양되었다. 무엇보다 고립, 분산된 여학생운동 조직의 결집을 이루어낼수 있는 전여대협건설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성과를 안아왔다.

90,91년에는 전여대협 간부수련회를 벌여내면서 연대의식이 고양되고 그로인해 지역단위 결속력이 높아지는 성과를 안아왔으며 전국적인 정책단위모임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만들어 낼 것을 결의하였다. 서여대협에서 제기한 취업차별 철폐투쟁을 함께 벌일 것에 대한 논의들을 이루어내고 또한 지속적인 지역사업교류를 고민하게 되었다.

92년에는 김보은, 김진관석방 투쟁을 대대적으로 일궈내면서 사회단체들과 공동대응하여 성폭력의 심각성을 전국적으로 여론화하면서 제도적으로 성폭력을 추방시키나가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오랜기간의 투쟁속에서 결국 성폭력 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성과점을 내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총선, 대선과 결합하면서 여학우들의 생활적 요구로부터 정치의식을 높여내는 4것을 중심으로, 그리고 넓게는 민주정부의 상속에서 성폭력의 제도적 제재, 모성보호의 제도적 보장등 여성부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총선, 대선투쟁을 전개하였다.

93년에는 윤금이씨살해 미군 처벌투쟁을 벌여내면서 주한미군의 문제를 폭넓게 여론화시켜내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내었고 함께 투쟁했던 많은 여성단체, 인권단체, 종교단체가 함께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하는데 이른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전국조직을 중심으로 세워내는데 더 가까이 가기에 이른다.

한 조직이 투쟁속에서 건설된다고 하였을때 전여대협은 건설준비단계에서 이와 같이 시기별로 제기된 큰 투쟁속에서 많은 한계점과 함께 내부적 성과점들을 가지면서 일구어온 조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논의력있는 대표자회의가 보장되지 못하면서 여학운의 통일적 사상을 내오지 못하고 명실상부한 지도조직으로서 전여대협의 위상은 미흡하였다. 전여대협의 각 기층에 있는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지구, 혹은 지역단위에서 총화해내고 그것

이 '전여대협 회의'속에서 심화되는 지도단위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여야 한다.
6년동안의 투쟁의 성과와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건설된 전여대협.
이제 전여대협의 도약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건준위의 부족한 부분의 평가는 이후 제 1기 전여대협 평가속에서 담아집니다.)

